

# ‘홍역 기승’ 2030 부모들 겁고민

홍역이 기승을 부리면서 영·유아를 둔 엄마들 중에서도 20~30대 엄마들의 우려가 특히 크다. 자녀와 함께 자신들도 ‘취약군’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전국 홍역 확진자는 35명이다. 연령별로는 16명으로 가장 많은 만 4세 이하를 제외하고는 20~30대가 가장 많다. 20대가 11명, 30대가 6명이다. 이외 40대가 2명이다. 여기에 성남시 3개 보건소에 신고된 홍역 의심환자는 5명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근 부모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둔 20~30대 엄마들의 홍역 주사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녀 감염 걱정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게시글에서는 “20, 30대 맘님들 홍역 주사 맞으시나요?”라며 “어제 아이 MMR 주사를 맞고 왔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 20대와 30대가 많이 걸린다고 한다. (맞으신 분들은) 남편 등 가족과 함께 다같이 맞았느냐”고 물었다.

또 다른 이용자도 “1997년 이전 출생자들은 1차 접종만 했다고 한다”며 “아이들 있는 집은 엄마도 접종하러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냐”고 궁금해했다.

20대~30대가 홍역에 취약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번 감염자 중 20~30대 비율이 높은 것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홍역에 감염된 영유아의 부모가 해당 나이대이기도 하고 이들을 1차 처치한 의료진의 연령대도 대체적으로 20~30대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택 순천향대학교 감염내과 교수는 “홍역 항체가 생기기려면 두 차례에 걸친 예방접종이 필요한데 2차 접종이 시작된 것이 1997년”이라며 “한 차례 접종만 했던 1983년생부터 1996년생이 항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체가 형성됐지만 자연적으로 정도가 약화됐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1967년 이전 생들의 경우에는 홍역이 빈발했던 시기에 자라 ‘자연면역’ 능력이 있지만 이후 태어난 이들의 경우에는 홍역이 사라 틀었을 때 태어나 항체가 약해졌다는 분석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0~30대의 추가 접종이 가장 필수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현재 홍역 확진자 수가 평년에 비해 다소 많기는 하지만 ‘대유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 전국 확진자 35명...4세 미만 16명 가장 많아 나머지 20대~30대가 총 17명으로 과반 차지 “2030대 주사 맞나요” 온라인 커뮤니티 문의 영유아 자녀들에 감염이라도 될까 전전긍긍

이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매년 홍역 확진자가 20~30명씩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가 특히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수천명씩 발생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 교수는 또한 “2000년~2001년 대규모 홍역 유행이 일어났을 때 국가적으로 홍역퇴치사업을 추진했다”며 “2001년 이후 초·중·고등학교를 다닌 이들은 모두 MMR 예방접

종을 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도 “의료기관이나 어린이 집 같은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홍역 항체 검사와 추가 접종은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20~30대의 추가 접종을 국가적으로 권유하는 것은 좀 더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역은 항체가 없는 경우 감염률이 높고 특히 소아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이에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2차 접종을 남겨둔 영유아 자녀 부모들이 접종 연령보다 더 이른

‘가속접종’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다.

현재 홍역 예방접종은 생후 12~15개월에 1차, 만 4~6세에 2차 등 두 차례에 걸친 MMR(홍역·볼거리·풍진)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지난 23일 만난 서울의 한 보건소 예방접종실 관계자는 “내원 수가 많지는 않지만 2~3일 전부터 전화 문의가 하루에 8통 정도는 오는 것 같다”며 “보통은 ‘아이(아이) 접종 시기가 안 됐는데 일찍 맞으면 안 되겠느냐’는 식의 내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홍역 유행지역을 제외하고는 MMR 접종 일정을 당겨서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현재 국내 홍역 유행지역은 대구와 경북 경산, 경기도 안산이다.

뉴스스



누가누가 힘이 더 쎄까? 24일 전북 전주시 전주송북초등학교 학생들이 개학을 맞아 겨울방학 기본 힘을 겨루며 팔씨름을 하고 있다.

## 검찰, 보복폭행 수도권·광주 조폭 35명 기소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관 김호삼)는 술자리 시비를 넘어 서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도권과 광주지역 조폭 3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중 경인지역 폭력조직 조직원 23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광주를 근거지로 하고 있는 폭력조직 조직원 5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경인 지역 폭력 조직원들은 지난

해 11월24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전 11시 사이 광주 북구 한 모텔 주차장에서 광주 폭력조직 행동대원 A(24) 씨의 뺨을 때리고 야구방망이를 든 채 협박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폭력조직원들은 같은 날 오전 3시에 서구 한 술집 주변 골목에서 인천 폭력조직 조직원 B(25) 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인 지역 폭력 조직원들은 ‘인천 조폭 B 씨가 광주 조폭들에게

폭행당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등 경인 지역 조폭들은 A 씨 부모의 결혼식을 앞두고 광주 조폭들과 ‘축하 술자리’를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조폭 간 시비가 붙은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후배가 대든다’는 이유로 광주 조폭을 술집 밖 골목으로 데려가 폭행했으며, 이를 본 광주 조폭 6명이 A 씨를 집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후 ‘광주 조폭에게 맞았다’며 수도권 조폭 후배 17명을 광주로 호출했다.

## 이탈리아 살비니, 난민센터 기습 폐쇄

이탈리아 포폴리즈 정부의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이 500여 명을 수용한 난민 센터를 기습 폐쇄했다고 23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살비니 부총리는 작년 11월 말 일명 ‘살비니 포고령’을 내리고 사회안정법을 개정해 난민에 대한 인도적 보호 축소, 난민 자격의 박탈 확대 등 난민에 대한 사회적 지위 축소를 약속했다.

기습 폐쇄된 이곳은 로마 북쪽 도시 카스텔누오보 디 포르토에 위치한 ‘카라’ 난민센터로 사회안정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명령을 시행하게 됐다. 이탈리아에서 2번째로 큰 난민센터인 카라는 2016년 부활절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해 거주민들의 발을 씻긴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보도에 따르면 22일에는 30명, 23일에는 75명이 이미 센터에서 쫓겨났으며 이날 말 안에 430명이 퇴거 조치될 예정이다.

살비니 부총리는 지난 8년 동안 약 8000여명의 난민을 수용해 온 이 난민센터를 두고 “미약 거래와 범죄의 소굴”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칠리아 등 이탈리아 전역에 있는 난민 센터에도 비슷한 운명이 닦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폐쇄로 이탈리아 정부가 난민 캠프의 임대료와 운영비 명목으로 활용되던 800만 유로(약 77억원)를 절약하게 됐으며 “이 돈은 이탈리아인들을 돕기 위해 쓰일 예정이다. 우리는 훌륭한 아버지라면 당연히 가족을 위해 할 일을 했다”고 했다.

카스텔누오보 디 포르토의 리카르도 트레발라니 시장은 “추방과 관련한 사진 통지가 없었다”며 “정부가 하루만에 수년간 이어온 작업을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곳에서 생활하던 이들은 갑작스럽게 버스를 타고 다른 난민센터로 이동됐다. 상당수 난민은 ‘살비니 포고령’에 따라 이탈리아 체류 자격을 박탈당해 다른 난민센터로 이주할 수 없게 됐다. 가디언은 이들이 목적지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일부는 지역 주민들이 수용기로 했다.

아당은 이번 난민 퇴거가 “나치의 강제수용소에서나 일어날 일”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 후쿠시마 원전서 2년 간 오염수 300톤 누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폭발사고로 방사성 물질이 대거 유출된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에서 지난 2년 간 300t(톤)의 오염수가 누수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24일 NHK에 따르면 원전 운용사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오염수를 보관하는 탱크에서 2년여 전부터 누수가 발생했던 것을 최근에서야 발견했다.

도쿄전력은 지난 10일 후쿠시마 제1원전 4호기의 바다 쪽에 있는 터빈 건물의 배관 및 케이블이 설치된 지하터널에서 물웅덩이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인근 오염수 저장탱크의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저장탱크의 수위는 2016년 11월 당시보다 1.7m나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누수량은 총 300t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2년이 지나서야 오염수가 누수된 것을 확인한데 대해 도쿄전력은 “하루 4차례 탱크 내 오염수 수위를 측정해 기록해왔지만, 수치 변동이 적어 수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도쿄전력은 탱크 내 물에는 일반 원전에서 방출할 때 기준의 2배에 달하는 1리터(1)당 12만 베크렐(Bq)의 트리튬(삼중수소)이 포함돼 있었지만, 지하터널에 고인 물은 이를 밀었다고 주장했다.

## 미 플로리다주 은행에서 최소5명 총격사망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은행에서 23일(현지시간) 한 총격범의 총기 발사로 최소 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다.

세브리ங 경찰서장 칼 호글런드는 “현장에 경찰이 진입한 뒤에 여러명이 살해되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이보다 앞서 현지 매체들은 여러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총격범은 경찰이 은행을 포위하지않겠다고 보도했다.

이직 정확한 부상자 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용의자는 21세의 제렌 하베르라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세브리는 플로리다주 중부에 있는 도시로 올랜도 남쪽 140km 거리에 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최근 몇 해 동안에 집단 총격사건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이는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 h-well 국민건강보험

[전화번호 129] | [고객센터 1577-1000]